

윤석민 선발 특명 “베네수엘라 잡는다”

“가족과 함께 스포츠 나들이 하세요”

오늘 광주·전남 안방서 프로축구·프로야구



고속 슬라이더·체인지업 우타 거포 봉쇄 내일 오전 10시 준결승... “결승전 가자”

한국, 1조 순위 결정전 2-6패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결승 베네수엘라와 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나선 투수 윤석민(KIA)에게 주어진 과제는 오른손 장거리 타자를 봉쇄하는 것이다.

김인식 야구대표팀 감독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펠트파크에서 일본과 1조 순위 결정전에서 패한 뒤 22일 오전 10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베네수엘라와 준결승전 선발 투수를 이례적으로 일찍 발표했다.

주변에서는 류현진(한화)이 선발을 맡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 감독은 윤석민의 이름을 호명했다.

지난 16일 멕시코와 2라운드 첫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65개를 던졌고 2%이닝 동안 안타 5개를 맞고 2점을 주고 감관했다. 류현진은 1라운드 대만과 첫 경기에서 등판하는 등 사실상 대표팀의 제1선발로 활약해왔다. 50개 이상을 던진 투수는 나흘을 쉬고 등판할 수 있다는 WBC 규정에 따라 준결승전에 당연히 나올 것으로 관측했으나 김 감독이 빠른 비장의 카드는 윤석민이었다.

이는 두 가지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평소 “가장 컨디션이 좋은 투수가 첫 경기 선발로 나온다”는 김 감독의 지론을 따져보면 류현진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윤석민은 WBC 3경기에서 9%이닝을 던져 삼진 9개를 쏴내며 1승무패, 무실점으로 역투, 평균자책점 0의 행진을 벌이고 있다.

어차피 베네수엘라전에 모든 투수를 몽땅 쏟아 부어야 하기에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로 컨디션이 가장 좋은 윤석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민은 작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2승1세이브, 평균자책점 2.35를 남기고 금메달을 따내는 데 일등공신으로 활약했다.



류현진이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반면 윤석민은 히든 카드에 가깝다는 점도 낙점의 배경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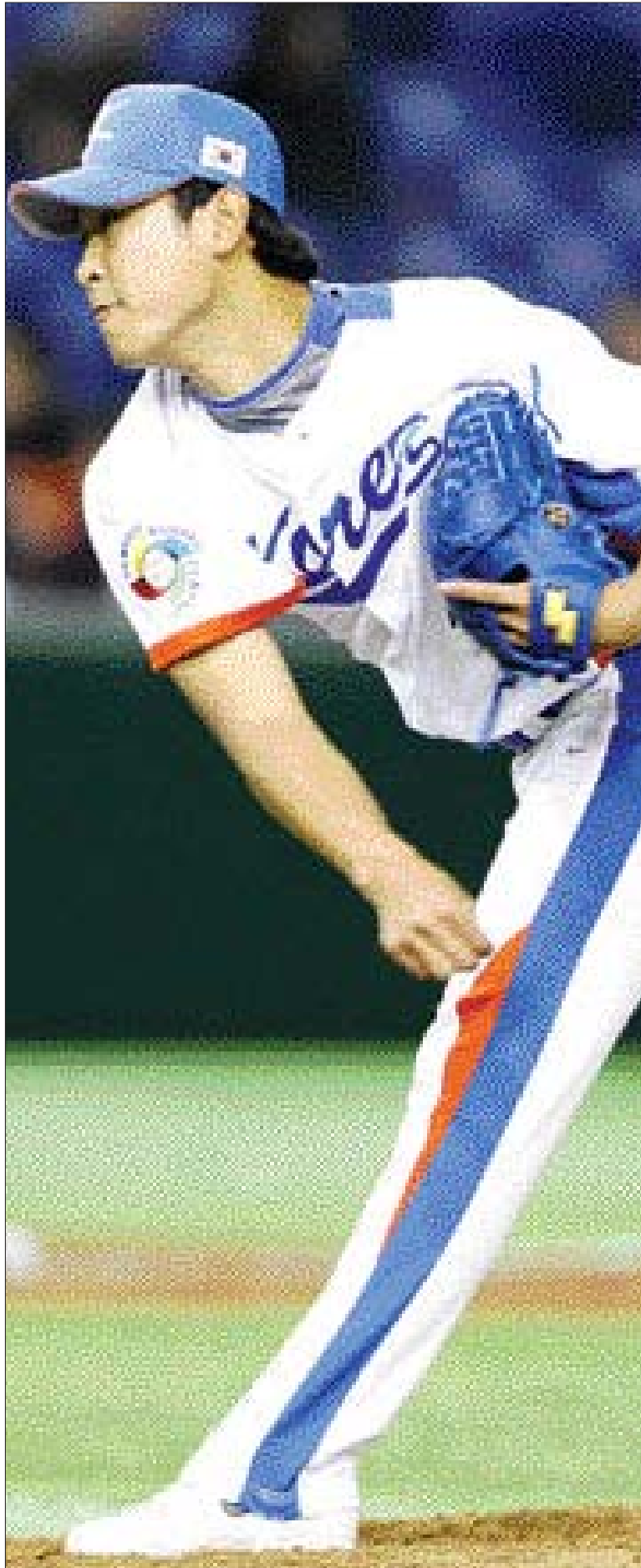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볼과 고속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자유자재로 던지는 윤석민은 특히 공을 낮게 뿌려 장타 한방이 무서운 베네수엘라를 잡는데 효과적인 카드다.

베네수엘라의 중심 타자인 호세 로페스, 미겔 카브레라, 멜빈 모라 등은 오른손 타자다. 이들 ‘우안 3인방’은 팀이 올린 홈런 12개, 40타점 중 홈런 5개, 15타점을 합작했다. 좌타자인 엔디 차베스와 스위치 히터인 세사르 이스투리스 등 1, 2번 타자만 잘 묶는다면 윤석민은 베네수엘라의 오른손 거포와 자신 있게 대결할 것으로 점쳐진다.

윤석민이 한 타수를 잘 막으면 스타일이 전혀 다른 류현진이 바통을 이어받을 공산도 크다.

이어 정대현(SK), 정현욱(삼성), 임창용(아쿠르트) 등 필승 계투조를 잇달아 투입, 베네수엘라 타선을 푼다겠다는 게 김 감독의 계산이다.

한편 한국은 2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펠트파크에서 벌어진 WBC 2라운드 1조 1-2위 결정전에서 라이벌 일본에 장단 15안타를 허용해 2-6으로 졌다. 연합뉴스



이용규 큰일날 뻔 “큰 부상 아니다”

20일 미국 샌디에이고 펠트파크에서 열린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 2라운드 A조 순위결정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3회말 한국의 이용규가 일본 선발 우쓰미에게 빈볼성 투구에 머리를 맞고 그라운드에 뒹굴고 있다. 이용규는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경기장에 나와 남은 경기를 지켜볼 정도로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주말 광주·전남의 ‘녹색 그라운드’에 박진감 넘치는 프로 스포츠 경기 가 이어진다.

토요일인 21일 프로축구 광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는 각각 FC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2009 K-리그 3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개막 이후 1승1패를 기록하며 ‘달팔찌’를 향해 순항중인 광주는 21일 오후 3시15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스타군단’ 서울과의 한판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중원의 지휘자’로 급부상한 최원권과 ‘공격의 핵’ 최성국 등 신인 선수들의 맹활약 속에, 김명중·고승기가 공격라인에 무게를 더하면서 팀 분위기는 좋다.

게다가 상대 서울은 수비라인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홈 2연승을 향한 상무의 발걸음은 가볍다.

시련의 3월을 보내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도 21일 오후 3시30분 광양 전용구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전남은 서울과의 홈 개막전 1-6 대패에 이어, 부산 원정에서 2점차 리드

를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에 머무는 등 출발이 좋지 않다. 실상가상 최정에 공격수 이천수도 경기중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는 바람에 ‘6경기 출장정지’를 받아 팀 분위기도 침체됐다.

하지만 승리가 절실한 전남은 용병들의 공격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개막전에서 분주한 움직임으로 2009시즌 활약을 예고했던 웨슬리는 두번 째 출전이었던 부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첫 골을 신고하며 공격포 가운데 들어갔다. 터줏대감 슈바도 부산전에서 골 맛을 본 만큼 두 용병의 움직임에 따라 전남의 표정이 어둡힐 전망이다.

주중 사직과 대구 원정에 나섰던 KIA 타이거즈도 주말 무등경기장 야구장으로 돌아온다. KIA는 21, 22일 오후 1시 히어로즈와의 2연전을 통해 시즌 전력을 가늠한다.

좌·우 거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최희섭·나지완의 화려과, 선발 진입과 불펜 합류를 위한 KIA의 마운드 경쟁이 야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토) 곡성 육과장레식장. 011-601-4090

▲위현옥(광주제일교회 권사) 씨 별세 최진훈(뉴욕최내과원장)·영훈(조선대 미대교수)·철훈(뉴욕코스모건축대표)·사나(바이올리니스트)·새로나·보람 씨 모친상= 발인 21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이계열(전 보문여고 교장)·문경남씨 차남 창명군 조성현(청송건설·도곡스타랜드대표)·이매자씨 장녀 화숙양=28일(토) 낮 12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김홍규씨 별세 진하·정숙·신숙·경숙·혜숙·명숙·영숙·효숙씨 부친상= 발인 21일(토)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김순녀씨 별세 나항도·오현·외순·채순·오숙씨 모친상= 발인 21일(토)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0

화족

▲이성관(전교장)·임 효씨 차남 의형군 박종호(법무사)·백명희씨 장녀 혜진양=21일(토) 낮 12시10분 광주 상무리츠컨벤션 2층(자스민홀)

부음

▲조삼득씨 별세 규상·영길·영희·영신·영남·하은씨 부친상 최상봉(곡성육과농협)·김영수(자영업)씨 부부상= 발인 21일

Advertisement for CBS No.1 News, featuring radio and TV programs, contact information (080-800-1031), and promotional text: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